장흥군, 한국수자원공사와 상생협력사업 MOU 체결

물 종합 도시 도약 지자체 – 공기업간 '뉴딜' 모범사례 만들어

주민 물복지 향상 위한 지방수도 선진화 등 5개 분야 내용 담아

장흥군 Eco Factory(친환경 병물공장) 건립 등 장흥군 지역 발전과 물복지 실현을 위해 11일 정종순 장흥군수와 최등호 영·섬유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맑고 깨끗한 물의 고장 장흥댐 물을 활용한 상생협력사업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흥댐 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물사업을 기반으로 활력 넘치는 물복지를 실현하는 등 물 종합 도시로 도약하는 지자체-공기업간 지역 발전 '뉴딜' 모범사례를 만들고자 마련되었으며, 이를 위해 물과 관련된 5대 분야에 대한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주민 물복지 향상을 위한 지방수도 선진화 △수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굴·선도 △Eco Factory(친환경병물공장) 건립 및 친환경 운영 △물홍보, 물교육을 통한 물 인프라 가치 제고 △지역가치 향상을 위한 상생사업 등이다.

앞으로 장흥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실무추진단을 운영하여 상생협력 분야에 대한 실행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정종순 군수는 "이번 협력 사업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와의 대표적인 물종합 상생협력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국 물산업의 중심지 장흥으로 도약하여 주민복지 향상 및 지역발전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등호 본부장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수도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강진군, 올 추석엔 강진 햅쌀 맛보세요

10kg 택배비 포함 32000원…명절 · 제수용 인기

강진군은 해안 간척지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2020년산 햅쌀을 강진농협통합RPC에서 판매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강진군에서 생산한 햅쌀은 도암면과 신전면 지역에 있는 도암 간척지와 옥전리 일대 에서 재배한 조생종으로 밥맛이 좋기로 명성이 자자한 조평벼, 전남3호 등을 8월 하순부터 수확 후 판매를 시작했다.

조평벼와 전남3호는 남부평야지에서 4월 말 ~ 5월 상순에 모를 심어 이삭패는 시기가 7월 10일경으로 기존 조생종보다 빨라 8월 하순에 수확이 가능하다. 특히 유기물과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강진만 청정 간척지에서 재배한 강진군 조생종 햅쌀은 병해충에 강하고 밥맛도 뛰어나 추석 명절용 선물 및 제수용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다.

'도암 간척지쌀'과'강진진미'브랜드로 판매되는 햅쌀 가격은 택배비 포함 10kg 32,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강진군쌀판매싸이트(http://gangjinssal.co.kr) 또는 판매창구(080-434-2070, 061-430-3115)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승옥 강진군수는"이번에 판매되는 햅쌀을 비롯해 강진군 대표 브랜드쌀 새청무 등 강진산 고품질 쌀 생산을 적극 육성해 벼 재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완도군, 2020 민생규제 혁신과제 선정

농어민 소득 증대 위한 '농어가 주택 규모 확대'등 8건

완도군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2020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통해 우수 과제를 선정하여 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지난 6월 5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에 접수한 과제에 대하여 1차 행정규제를 선별하고, 2차 관련 부서 검토를 마쳤다.

그리고 지난 3일 완도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개선 과제의 타당성 및 개선 가능성 등을 검토해 최종 8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3가지를 심사 기준으로 두고 우수 과제를 선정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농어가 주택 규모 확대', 우수상은 '육아 휴직 급여(수당) 지급 및 기여금 납부 방법 개선 방안' 등 3건, 장려상은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일상생활 법률 서비스 제공 방안' 등 4건이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농어가 주택 규모 확대'는 농어촌 민박사업, 텃밭 체험시설 등 농어가 주택 활용도가 높아지고 농업용 창고 등 부속시설 규모도 커졌지만, 관련 법령에서 부지면적 660㎡(약 200평)이하로 규제하고 있어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 제안은 농어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은 공모 입상자들에게 상장과 시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완도=김광수기자

이동진 진도군수, 어업인 고충 해소 위해 수산양식시설 방문

이동진 진도군수가 코로나19에 대처하면서 어업인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수산양식시설 등을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9일(수) 진도군 의신면, 임회면, 고군면 일대의 김 육상 채묘장, 수산물 유통 등 수산양식시설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고수온 대응 지원, 양식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의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특히 미역·다시마·곰피 등 해조류 종자 배양 스마트 양식기술, 김 전략 품종 육성을 위한 육상·종자 채묘장 등을 방문, 수산 재해 대비 사전 준비 상황 점검과 양식 수산물 적기 출하 등을 강조했다.

또 수산물 유통과 소비 촉진 등 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해 김과 미역 등 건어물, 전복 유통 현장도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등을 당부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지역발전의 비전이 제시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이라며 "경영 안정 등을 위해 어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장흥군, '블루베리' 대표 작목 육성

장흥군은 최근 3년간 블루베리를 지역 대표 아열대 작목으로 육성해 탄탄한 소득기반을 다졌다고 밝혔다.

군은 전남농업기술원 전국 제일의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블루베리를 장흥 대표 특화작목으로 키웠다.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공모사업을 통해서는 조기수확 생산 기반 조성, 친환경 농자재 투입, 6차산업화 컨설팅, 수확 후 일괄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 장흥군은 블루베리 재배 면적 16ha, 40호 농가(무농약 인증 22호)의 생산 규모를 갖췄다. 농가에 생산된 블루베리는 친환경 급식에 납품되는 등 안전농산물로 신뢰받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강진군, 2021년 주민단체 참여 숲 공모사업 선정

조성 사업비 2억 원 확보

강진군은 지난 8일 '2021년 숲속의 전남 주민단체참여숲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추진 사업 대상지인 칠량면 삼흥저수지 유휴지 일원에 주민·단체 참여형 생활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민단체 참여 숲은 블루이코노미(Blue Economy) 실현을 위한 다양한 테마 숲 조성 사업으로 주민 또는 단체가 직접 제안해 숲을 조성 및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확대해 매력 있고 가치 있는 지역 경관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숲속의 전남 주민단체 참여 숲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12개소, 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지역 주민을 위한 숲을 조성했다.

군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칠량선후회'는 지역 향우 출신 61명으로 구성돼 소외계층 봉사활동, 환경정화, 소공원 가꾸기 등 많은 지역 사회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단체이다.

군은 선후회와 함께 대상지에 적합한 교목, 관목, 초화류를 식재하고 벤치 및 전망대를 설치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화합의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강진=김영일기자